

나주 ‘빛가람 빛정원 페스타’ 21일 개막

시, 23일까지 호수공원 일원…미디어아트 등 야간축제
윤병태 시장 “마법 같은 밤 경험…행복한 추억 채우길”

나주시가 가을밤 시민과 관광객에게 한
상적인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13일 나주시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빛가람 호수공원 일원에서 ‘별
이 내린 빛의 정원’을 주제로 ‘2025 빛가
람 빛정원 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빛과 자연, 예술이 어우러
진 도심형 야간정원 콘셉트로, 화려한 조
명 연출과 미디어아트를 통해 관람객이 마

치 동화 속에 들어온 듯한 ‘빛의 정원’을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진다.

개막식은 21일 오후 6시 식전 공연을 시
작으로 개막선언과 미디어퍼포먼스 크루
의 개막 공연, 점등 퍼포먼스, 빛정원 라운
딩 순으로 진행된다.

빛과 음악, 미디어아트가 어우러지는 개
막 무대를 통해 축제의 서막을 화려하게
장식할 예정이다.

이번 페스타의 하이라이트인 빛 조형물
전시 구간은 빛가람호수공원 야외무대 뒤
여울다리 입구에서 배매산 산책길까지 이
어진다.

다채로운 빛 조형물과 미디어아트 장식
이 조성돼 밤하늘 아래 반짝이는 ‘빛의 터
널’과 ‘별빛 산책길’을 연출한다.

특히 축제 종료 후에도 조명 시설은
2026년 1월 4일까지 야간 상시 점등, 시민
과 관광객이 연발연시 내내 아름다운 빛의
정원을 즐길 수 있다.

22일 오후 4시에는 배매산 일원에서 ‘빛
가람 건강돌레길 조성 기념 시민걷기대
회’가 열린다.

걷기 코스는 야외무대에서 출발해 여울
다리, 황토길, 정상돌레길, 경관 폭포, 웨
딩정원, 수국원을 거쳐 다시 야외무대로
돌아오는 순환 코스로 구성됐다.

시민들이 빛가람의 자연경관을 따라 걸
으며 건강과 힐링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시는 이번 걷기대회를 통해 시민들이 도
심 속 자연의 아름다움과 건강의 가치를
체험하고 이후 야간에는 빛정원 속에서 추
억을 남길 수 있는 연계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축제장에는 40여개의 플라마켓과 어묵,
분식 등 겨울 간식 푸드트럭, 지역 대표 기

업 팔도와 협력한 특별 판매 부스 ‘팔
도 라면 먹고, 빛길 갈래?’도 운영된
다. 이 부스는 팔도 제품을 활용해 따
뜻한 라면 한 그릇을 제공하며 지역
상인회와 협력한 상생형 프로그램으
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
정이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페이스페인
팅, 미니트리 만들기 등 체험형 시민 참여
부스도 마련한다.

행사 기간 중 드레스코드 ‘그린’을 착용
한 시민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윤병태 시장은 “올해 빛가람 빛정원 페

스타는 ‘별이 내린 빛의 정원’이라는 주제
처럼 시민들이 환상적인 빛의 세계 속에서
마법 같은 밤을 경험하길 바란다”며 “가
족, 친구, 연인과 함께 따뜻한 온기를 나누
며 깊어지는 가을의 끝자락을 행복한 추억
으로 채워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조화현 기자 pose007@gwangnam.co.kr



1년간의 노력 ‘배움 결실’ 최근 보성군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제15기 보성생명농업대학 졸업식이 개최됐다. 농업대학 입학생 71명 중 졸업생 52명과 관계 공무원 등 60여명이 참석해 1년 간의 배움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올해 보성생명농업대학은 지난 4월 23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스마트농업반과 유통마케팅반 2개 과정을 운영했다. 사진제공=보성군

군민 염원 ‘고흥군립하늘공원’ 조성…추모공간 탄생

군, 내달 9일 준공식…봉안당·자연장지 등 편의시설 갖춰

고흥군이 추진 중인 ‘고흥군립하늘공원
조성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내
년 1월 개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군민들의 오랜 염원과 시
대적 요구가 어우러진 숙원사업으로, 단
순한 장사시설을 넘어 품격 있는 추모문
화의 새로운 장을 예고하고 있다.

총 19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고흥군립
하늘공원은 고흥읍 호령리 산 169번지 일
원에 조성됐으며, 봉안당, 자연장지(잔디
형), 유택동산,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함
께 갖춰졌다.

이번에 준공되는 하늘공원은 웅장한 외
관과 쾌적한 환경,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을 갖춘 현대식 장사시설로, 고인의 안식

과 유가족의 위로가 함께 머물 수 있는 공
간으로 조성됐다.

밝고 품격 있는 내부 공간과 합리적인
운영체계를 통해 군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봉안시설의 기본 사용기간은 30년이
며, 1회 연장을 통해 최대 60년까지 이용
할 수 있다.

이는 군민이 가장 선호하는 30년 사용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최근 조성된 공설
장사시설들과 이용료 수준도 비슷하다.

사용료는 지역 내 기존 100만원(이용
료 80만원, 관리비 20만원)으로, 최근 조
성돼 운영 중인 인근 공설 추모시설에 비
해 최대 사용기간은 길고 이용료는 비슷



고흥군립하늘공원

한 수준이다.

공영민 군수는 “하늘공원은 단순히 고
인을 모시는 장소가 아니라, 군민의 품격
성대 운영 중인 인근 공설 추모시설에 비
해 최대 사용기간은 길고 이용료는 비슷

뜻함이 공존하는 하늘공원을 통해, 군민
들이 멀리 가지 않고도 최대 60년까지 안
정적이고 합리적인 장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영광 브랜드 쌀, 서울 학교급식 공급

2026~2028년…품질·안정성 등 인정

영광군의 지역 대표 브랜드 쌀인 ‘세계
절이사는집’이 서울지역 학교 급식용 쌀로
선정.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납품된다.

이는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주관한
‘친환경 양곡 생산자단체 선정 평가’에서
품질과 안전성, 위생관리, 공급 실적 등
전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결과다.

‘세계절이사는집’은 영광의 깨끗한 자
연환경에서 재배된 고품질 쌀로, 지역농
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으로 생산하
고 철저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갖춘 영광
군통합RPC에서 가공된다.

특히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인증을 획득
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았으며, 전

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평가에서 9년
연속 선정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품질
을 자랑하는 명품 쌀이다.

영광군통합RPC는 지난 2013년부터 서
울시의 각급 학교에 ‘세계절이사는집’ 브
랜드 쌀을 공급한다. 학생들에게 건강하
고 맛있는 급식용 쌀을 제공해 왔으며, 이
번 선정으로 향후 3년간 서울 지역학교
1000여개소에 영광산 청정쌀을 지속적으
로 납품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울뿐만 아니
라 전국의 공공급식 시장에서 영광쌀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p98@gwangnam.co.kr

광양, 캐릭터 ‘매돌이’ 저작재산권 민간에 개방

상품 제작·판매 3개 기업 모집…1년간 사용 허가

광양시는 시의 대표 캐릭터 ‘매돌이’ 저
작재산권을 민간에게 개방하기로 하고,
매돌이를 활용해 다양한 상품을 제작·판
매할 수 있는 3개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저작
재산권 일부를 민간에 조건부로 개방하는
‘매돌이 캐릭터 저작재산권 개방 시범사
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광
양시에 고정 오프라인 사업장을 보유하고
관련 업종을 1년 이상 지속해온 사업자에
한하며, 신청상품은 최소 3종 이상이어야
한다.

시는 1차 서류, 2차 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업 기획성, 운영 역량, 상품시장성 등을
종합 평가해 고득점 순으로 3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상표권을 제외한 ‘매돌
이’ 캐릭터 저작재산권 일부 사용을 허가
받아 1년 간 문구, 완구류, 의류, 잡화, 생
활용품 등 다양한 굿즈를 제작·판매할 수
있다.

시는 캐릭터 저작재산권 사용 허가와
상품 디자인 검토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만 관여하며 상품 제작과 유통, 수익 창출
등의 사항에는 직접 관여하거나 책임지지
않는다.

광양=김귀진 기자 ikjin@

강진, 경제 활력…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

서성도담길·마량힐집거리 신규 지정…소비자 혜택 강화

강진군은 강진읍 서성도담길 상점
가와 마량힐집거리를 신규 골목형상
점가로 지정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을 대폭 확대했다.

강진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총
405개소로, 강진읍시장 132개소, 강
진읍 중앙로상가 106개소, 강진읍 상
권활성화구역 88개소, 강진읍 서성도
담길 31개소, 마량힐집거리 21개소 등
강진읍 상가변영화구역, 마량5일시
장, 병영5일시장이다.

가맹점은 디지털온누리 앱 ‘가맹점
찾기’ 또는 강진군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강진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류형과 디지털형(모바
일·카드) 두 가지 방식으로 발행된다.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16개
금융기관에서 5000원, 1만원 단위로
개인은 5%의 할인을 받아 월 50만원
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디지털형 온
누리상품권은 ‘디지털온누리’ 앱을 통



해 개인은 10%의 할인을 받아 월 100
만원까지 충전·사용 가능하다.

신용 서성도담길 상인회장은 “신규
골목형 상점가로 올해 초 동네상권발
전소 공모사업이 선정되면서 수국길
축제와 갈대축제기간에 상인회 자체
행사를 추진해 활력을 되찾았고, 더불
어 상가 일원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으로 지정돼 기쁘다”며 “상가는 매출
이 늘고 소비자는 혜택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을 많이 이용해 달라”고 부탁했다.

강진=이진국 기자 sa332252@

김우진 희곡 친필 원고 4편 국가문화유산 등록

희곡 분야 최초 사례…목포문화관 소장

한국근대극의 선구자 김우진의 희곡친
필원고4편이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등록됐
다. 13일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문화관이
소장하고 있는 김우진(1897~1926)의 희
곡 친필 원고 4편(희곡분야)이 국내 최초
로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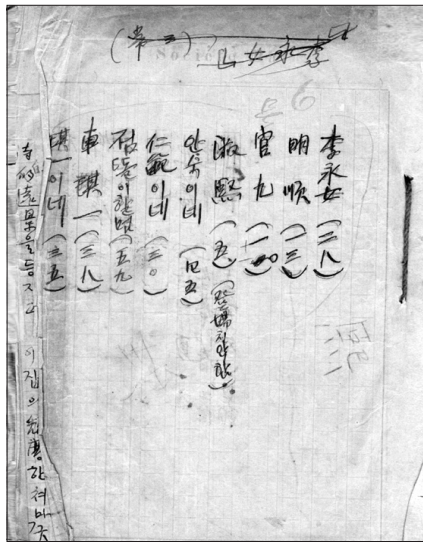
국가유산청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김우진 희곡 친필원고’를 13일 자료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고시했다.

작품은 목포문화관이 소장 중인 ‘두덕
이 시인의 환멸’·‘이영녀’·‘난파’·‘산대
지’ 등 총 4편이며, 1925~1926년 김우진
이 직접 집필한 친필 원고다. 이들 작품은
근대 희곡사뿐만 아니라 기록문화유산으
로서의 가치까지 인정받아 국가 차원의
문화유산으로 공식 등재됐다.

특히 희곡 분야 친필 원고로는 국내 최
초의 등록문화유산 사례로, 희곡이 문학·
공연·사회사적 맥락을 모두 포괄하는 종
합 예술유산으로 인식되고 보존되는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우진은 일제강점기 목포와 서울을 중
심으로 활동하며, 당시 신파극이 주류였
던 연극 무대에 서구 근대극 형식과 비판
적 리얼리즘을 도입한 작가다.

이번에 등록된 희곡들은 단순한 극문학
을 넘어 1920년대 조선 지식인의 현실 인
식과 예술적 고민을 담은 귀중한 기록물
로 평가된다. 1920년대 근대문학기 친필
희곡 중 가장 오래된 김우진의 원고는 시



기적 희소성과 역사성, 학술적 가치가 매
우 높아 다양한 분야의 연구 자료로서도
활용도가 높다.

최혜강 목포시 문화예술과장은 “등록
된 희곡 원고는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하
며, 향후 목포문화관에서 특별전을 통해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목
포시의 근대문화유산을 적극 발굴하고 보
존·활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문화관은 근대극을 우리 무대
에 최초로 도입한 김우진, 우리나라 최초
여류 장편소설가 박화성, 사실주의 연극
을 완성한 차범석, 평론문학의 거장 김현
을 넘어 1920년대 조선 지식인의 현실 인
식과 예술적 고민을 담은 귀중한 기록물
로 평가된다. 1920년대 근대문학기 친필
희곡 중 가장 오래된 김우진의 원고는 시